

# 부문별 주요 기사

9월 1일 ~ 9월 30일

| 대내경제  
| 대외경제





## 부문별 주요 기사

9월 1일~9월 30일

### 대내경제 48

<농업·식량>

北, 폭염·가뭄으로 올해 곡물 수확량 감소 전망

<시장>

북한 아파트 가격 하락세

<주민생활>

9.9절 행사준비에 주민동원 및 상납금 강요

### 대외경제 50

<남북경협>

남북경협을 대비하는 기업들

<대북제재>

미국, 대북 제재 지속

북한, 안보리 제재 위반 의혹 제기

<북중관계>

북한 관광 재개

북한과 밀착하는 중국, 일대일로 연계하여 협력 도모

북·중교역 통계상 위축, 그러나 실제로는 활발

<북러관계>

북·러, 북한 노동자 활용 방안 및 경제협력 모색

<언론에 소개된 대북지원 >

## 대내경제

### <농업>

조선일보(10.1), 중앙일보(10.1), Daily NK(9.24, 9.25), RFA(9.5, 9.7, 9.17, 9.21, 9.27)

#### 北, 폭염·가뭄으로 올해 곡물 수확량 감소 전망

유엔농업식량기구(FAO)는 7~8월의 폭염과 가뭄의 영향으로 약 9만 9천ha의 농경지가 피해를 받은 것으로 파악하며, 올해 북한의 수확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실제로 황해남도를 포함한 북한의 대표적인 곡창지대의 주요 작물 생산에 차질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예를 들어, 평남 문덕군 '립석 협동농장'의 올해 예상 수확고 판정 결과 수확량은 전년대비 약 5% 감소한 3600t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은 농촌 입구에 낱알 유통을 단속하는 초소를 세우고, 1인당 최고 15kg 이상의 낱알을 운반 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는 등 알곡 유통에 대해 엄격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 <시장>

Daily NK(9.17, 9.28)

#### 북한 아파트 가격 하락세

평양, 평성의 고급 아파트 가격이 8월부터 하락세를 보인다는 소식임. 6월까지 20~30만 달러(230m<sup>2</sup>)가격대를 유지하던 평양 중심지역의 중구역 및 대동강 주변 아파트는 8월 기준으로 5만 달러 이상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전해짐. 지방 아파트 가격은 더 급락한 것으로 보이며, 올해 초 10만 달러 이상이었던 평안남도 평성시 중덕동과 역전동 아파트 가격이 8월말 기준으로 7만 달러 수준으로 폭락함.

8월부터 시작된 이번 가격 하락에 대해 한 대북 소식통은 평양의 려명거리를 포함해 대규모 고급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면서 공급 물량이 늘어났고, 한편으로는 대북제재 영향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어 자금이 부족해진 사람들이 아파트를 팔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함.

## <주민생활>

Daily NK(9.10), RFA(9.13, 9.10)

### 9.9절 행사준비에 주민동원 및 상납금

9.9절을 맞이하여 북한 당국은 기관, 기업소, 인민반을 대상으로 김일성-김정일기금 모금 사업을 벌인 것으로 전해짐. 북한당국은 충성심을 빌미로 반 강제적으로 기업소나 인민반에 소속된 주민들이 기금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원성이 높았던 것으로 알려짐. 또한 북한 당국은 해외에 있는 북한 무역일꾼들에게도 9.9절 행사를 위한 충성자금 상납을 지속적으로 강요한 것으로 알려짐. 일례로 중국 지린성 엔지시의 한 북한 무역일꾼의 경우 북한당국이 2000위안(한화 약 33만원)을 바칠 것으로 요구 했다고 전함. 대북제재로 해외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상납금 독촉 횡수나 주기가 점차 짧아지고 액수 또한 크기 때문에 불만을 제기하는 내부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는 소식임.

---

## 대외경제

### <남북경협>

국민일보(9.3), 매일경제(9.18), 파이낸셜 뉴스(9.18)

#### 남북경협을 대비하는 기업들

기업들이 남북경협사업 확대에 대비해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짐. 현대그룹은 현정은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경협TF팀'을 중심으로 금강산 및 개성 관광 등 향후 남북경협 사업 추진을 위한 로드맵 구상 중이며 포스코그룹은 포스코 주요 그룹사가 참여하는 '대북사업 TF팀'을 구성해 운영 중으로 알려짐. 특히 포스코는 대북사업 재개시 중국에 의존중인 희토류 수입선 다변화 및 흑연 철광석 등 광물 수입 가능성. KT는 '남북협력사업개발 TF'를 가동하고 북한 내 정보통신기술(ICT)인프라 사업에 대한 참여를 신중히 검토중이며 KT스카이라이프의 강국현 사장은 남북경제협력이 진행된다면 북한 전역에 위성방송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힘. 롯데그룹은 러시아 연해주, 중국 동북 3성까지 아우르는 지역에서 사업을 모색하는 '북방 TF'를 구성하였음.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도 인프라 사업을 위대 대북사업 준비팀 구성한 것으로 알려짐. 한편 IBK기업은행 북한경제연구센터가 2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49.5%가 남북경협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하였음.

---

### <대북제재>

서울신문(9.3), 세계일보(9.5), VOA(9.14, 9.17, 9.22, 9.24), 경향신문(9.15)

#### 미국, 대북 제재 지속

미국이 추가 대북제재를 지속하고 있음.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대북제재와 압박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미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미국산 방탄 차량을 북한으로 불법 조달하고 우회시켰다는 이유로 중국인 마위농과 시젯회사(Seajet Company Limited), 그리고 홍콩 소재 ZM 국제 회사를 제재 명단에 올림. 또한 미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은 13일 북한 국적의 정성화씨와 그가 최고경영자로 있는 중국 국적 IT기업 엔벤실버스타, 그리고 이 회사의 러시아 소재 위장기업인 볼라시스실버스타를 제재 명단에

추가함. 한편 미 의회는 북한의 에너지 공급과 금융 거래를 차단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경고하였음. 미국은 특히 북한이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유엔이 금지한 유류와 석탄을 거래하는 문제를 국제사회에 제기. 실례로 4월 북한 유조선 완흥 11호가 해상에서 러시아 유조선 패트리엇로부터 석유를 옮겨 실어 북한 남포항에 하역하는 모습은 미국 정찰 위성에도 포착됐음. 미국은 이런 활동들을 탐지하고 저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항공기와 수상함을 배치했다고 밝힘.

#### **북한, 안보리 제재 위반 의혹 제기**

북한이 시리아 등 분쟁지역에 탱크와 탄도미사일을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음. 유엔의 대북제재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이 시리아와 예멘, 리비아 등 분쟁지역에 무기를 판매하고 대북제재 금수품목인 유류제품과 석탄을 거래하였다고 함. 북한의 무기 기술자들이 지난해 시리아의 군수 공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북한산 석탄이 중국으로 옮겨진 사례도 보고서에 다수 포함되어있음. 여기에는 북한이 불법 ‘해상 밀수’를 은폐하기 위해 사용한 수법들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록된 것으로 전해짐. 이밖에도 중국기업은 수억 달러어치의 북한산 철과 강철, 섬유, 식품류 등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대북제재를 위반해 왔음. 이 중 섬유는 2017년 10월부터 12월 사이 1억 달러어치가 중국에 수출됐는데, 이는 중국이 유엔에 보고한 것보다 9천 500달러나 많은 액수라고 전문가패널은 보고서에 명시했음. 또 200개의 북중 합작기업이 적발되고, 불법으로 금융거래가 이뤄지는 등의 정황들도 파악된 것으로 전해짐.

유엔제재를 위반하며 북한과 합작사업을 벌이고 있는 개인과 기업이 3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 러시아 기관과 개인이 유엔 제재를 위반하며 북한과 합작 사업을 진행한 의혹도 제기되었는데, 북한 대외건설지도국 산하 건설회사인 겐코(Genco)와 러시아 국적자가 러시아 사할린에 있는 한 건설회사를 공동 소유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임.

---

### **<북중관계>**

아주경제(9.16), VOA(9.23), 중앙일보(9.25), 문화일보(9.28)

#### **북한 관광 재개**

북한 단체관광 외화벌이가 시작된다는 소식임. 북한정권수립 70주년(9·9절)행사를

맞이하여 리잔수 중국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이 방북했을 당시 북한에 대한 경제건설 지원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하였음. 이를 계기로 유엔 대북 제재의 '회색지대'인 관광분야를 통해 대대적인 북한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잠정 중단됐던 북한 단체관광은 구체적으로 16일부터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북한 또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여행 홍보에 나선 상황으로 전해짐.

#### **북한과 밀착하는 중국, 일대일로와 연계하여 협력 도모**

북·중 간 정치·외교, 경제적 거리 밀착이 강화되고 있다는 기사임. 한반도에 평화 조짐이 일자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 랴오닝성이 '일대일로' 추진의 일환으로 동북아시아 경제권구상 방안을 지난달 말 공개했음. 구체적으로 '일대일로 종합 시범구 건설 방안'이라는 개발 계획안과 동북아 정세가 개선되는 상황을 기회로 '동북아 경제회랑'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임. 이를 위해 일단 '적절한 때'에 '단동 경제특구'를 조성할 계획을 밝혔으며 이밖에 다렌자유무역항 조성, 전면적 개방과 고도의 질적 성장 추진, 설비제조업 비교우위 구축과 글로벌 협력강화, 금융서비스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 및 현대 금융서비스 체계 구축, 민간협력 확대를 통한 이미지 제고와 중화문화 전파 등을 강조하였음.

#### **북·중교역 통계상 위축, 그러나 실제로는 활발**

올해 1월부터 8월 사이 북중 교역량이 전년도 대비 57.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특히 이 기간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1억4천360만 달러로 전년도보다 89.3% 줄어들었고, 반대로 중국이 북한에 수출한 물품 총액은 13억6천만 달러로 전년도 대비 38.9%하락하였음. 그러나 공식 통계상 북중 교역 위축과 달리 실제 현장에서는 수산물 등 금수품목의 대량 밀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 소식통에 따르면 두만강 접경지역인 중국 지린성 훈춘 장마당에는 최근들어 북한산 상품이 많이 나와 팔리고 있는데 일부는 제재품목이라고 전하였음. 또한 소식통은 요즘 갑자기 많은 양의 북한산 해산물들이 거래되는 것을 보면 중국 세관 등 기관이 밀무역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음.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2018 평양남북정상회담(3차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해 북중접경지역에서 대북제재가 대폭 이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함.



## <북러관계>

VOA(9.13), News1(9.14), 연합뉴스(9.26)

### 북·러, 북한 노동자 활용 방안 및 경제협력 모색

북한당국자가 러시아 정부에 극동지역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의 본국 송환을 막아줄 것을 요청하는 등 북·러 당국자 간 유엔 제재 하에 북한 노동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짐. 북한 대외경제상은 지난 13일 블라디보스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러시아 연해주 주지사 권한대행 등과의 만남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하였음. 이에 대해 러시아 연해주 주지사 권한대행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이미 모스크바 당국에 북한 근로자 5,000명이 일할 수 있도록 허용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답하였음. 유엔안보리가 지난해 12월에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제2397호에는 모든 북한 노동자들은 2년 이내에 북한으로 돌려보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 회원국들에 2019년 말까지 원칙적으로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할 것을 의무화하는 제재안을 발표한 뒤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의 수가 급감해 현재는 북한 노동자의 수가 가장 많을 때의 10분의 1 수준임 5천 명 가량만 남아있다고 알려짐.

이밖에 김 대외경제상은 유엔 제재 하에서도 거래가 가능한 물품의 목록을 러시아 측에 전달하고 북한 상품 홍보·판매를 위한 '무역관'을 연해주에 세우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북·러 간 철도 연결과 접경지 교량 건설 등에 대해서도 협의했다고 전해짐.

## <언론에 소개된 대북지원>

VOA(9.13), RFA(9.10)

아래 표는 9월 한 달 간 언론에 소개된 대북지원 소식 목록임.

단체 (국가명)	지원일	지원품	지원액 혹은 지원량	비고
국제적십자연맹	2018	구호물품/ 긴급구호자금	담요, 구급약 등 구호물품/ 긴급구호자금 약 30만 달러	태풍 솔릭으로 인해 발생한 이재민들에게 구호물품 전 달 및 재난대응자금 지원

## 기사 원문 리스트

- [2018.8.01] 북, 평양시 가정용 전기요금에 누진제 적용(RFA)
- [2018.8.01] “北 전력난 완화는 중국의 은밀한 지원 덕”(아시아경제)
- [2018.8.01] 北 5세미만 사망률 1000명당 24명…南보다 8배나 높아(파이낸셜뉴스)
- [2018.8.02] “北 영유아 영양실조 감소 추세지만 지역 간 격차 커져”(DailyNK)
- [2018.8.03] “북한, 국방·IT숙련노동자 해외송출로 기술력 확보”(매일경제)
- [2018.8.03] WSJ, “러시아, 유엔안보리 제재에도 北노동자 신규허가”(조선일보)
- [2018.8.04] 북, 주민통제 수단으로 장마당 이용시간 제한(RFA)
- [2018.9.05] FAO “폭염·가뭄으로 북 올가을 수확 감소 전망” (RFA)
- [2018.8.06] 유엔 보고서, 북한 주민 53.7% ‘농지 보유’(VOA)
- [2018.9.07] “북, 수확 감소세 속 알곡 유통 엄격 통제” (RFA)
- [2018.8.07] 세계보건기구, 북한 ‘홍역 퇴치국가’ 인증(매일경제)
- [2018.8.07] 유엔, 북에 인도적 지원때 대북제재 면제 가이드라인 승인(조선일보)
- [2018.8.07] 北, 재작년부터 러시아산 위장해 석탄 수출해 왔다(뉴스1)
- [2018.8.08] 캐나다 NGO “북 북부 산간지방 아동 영양실조 심각”(RFA)
- [2018.8.09] “북 실효성 없는 대체연료 개발로 주민 원성 높아”(RFA)
- [2018.8.09] “북 인도주의 접근 거의 불가능…자강도는 접근 안돼”(RFA)
- [2018.8.10] 국제적십자사 “북 폭염 구호단 전격 파견” (RFA)
- [2018.9.10] 북주민, 민생 외면한 9.9절 행사 비판 (RFA)
- [2018.8.10] 북, 평양에만 24시간 전력 공급(RFA)
- [2018.8.10] 한국, 북한산 석탄 불법 반입확인…“러시아산으로 위장반입”(RFA)
- [2018.9.10] 北, 9·9절 맞아 해외 무역일꾼에 상납금 지속 요구 (Daily NK)
- [2018.8.11] 북, 러시아 액화가스 수입 늘려 연료난에 대비(RFA)
- [2018.9.13] 북, 김일성·김정일기금 모금에 주민 참여 강요 (RFA)
- [2018.9.13] 평양시민, 연이은 행사로 심각한 후유증 (RFA)
- [2018.8.13] 한국정부, 북한석탄 반입 선반 4척 입항금지 조치(VOA)
- [2018.8.14] WFP “대북제재로 인도적 지원에 큰 차질…송금, 선박 수송 제한”(RFA)
- [2018.8.16] [한반도 안보 키 쥔 중국] 북중접경지역 개발 탄력…중이 한반도 해빙 최대 수혜(서울경제)
- [2018.8.16] UNICEF “대북지원 모금 목표의 17% 불과”…“엄격한 감독, 규약 적용해야” 지적도 (VOA)

- [2018.8.17] 대북제재?...北나선가는 세관엔 中관광객들로 북새통(국민일보)
- [2018.8.17] 북 물가, 대북제재 속에서도 안정세(RFA)
- [2018.9.17] 서울과 반대로 가는 평양...중심구역 아파트 가격 급락(Daily NK)
- [2018.9.17] WFP, 대북지원사업 내년 2월까지 두달 연장(RFA)
- [2018.8.17] 北, 9.9절 앞두고 中단체관광만 금지한 듯..서방 단체관광은 계속(뉴시스)
- [2018.8.21] 평성 동주들은 왜 최고급 아파트 팔고 교외 독채로 갔나?(DailyNK)
- [2018.9.21] FAO “북 올해 작황 부진, 64만 여톤 수입해야”(RFA)
- [2018.8.22] 미 재무부, 북한 석유 환적한 러시아 기업과 선박 제재...이번달 세 번째 대북 독자제재(경향신문)
- [2018.8.22] “북 출산율, 현 인구 유지 불가능...인구 감소할 것”(RFA)
- [2018.8.24] 중, 북한에 신암록강대교 개통 자금지원(RFA)
- [2018.9.24] 평남 문덕군 ‘립석 협동농장’ 예상 수확고 작년보다 5% 감소(Daily NK)
- [2018.9.25] 北당국, 농업 생산량 감소 예상되자 ‘알곡 유출 방지’ 지시(Daily NK)
- [2018.8.27] 북 국영농장, 싼 임대료로 제조업체 유치(RFA)
- [2018.9.27] 북 주민, 올 가을 작황 좋지 않아 걱정(RFA)
- [2018.8.27] 빅터 차 “북 시장 활성화...경제체제 전환 불가피”(RFA)
- [2018.8.28] 북 인민군 부대 급식 일부 개선돼...“남새·공류·고기반찬 제공”(DailyNK)
- [2018.8.28] 북, 폭염으로 올해 농사 전망도 암울(RFA)
- [2018.8.28] “北 경제 회생의 열쇠, 돈주가 쥐고 있다”(국민일보)
- [2018.9.28] “北돈주, 월세 수요자 감소에도 ‘아파트 한달 50달러’ 고집” (Daily NK)
- [2018.8.31] 북한에 공식적 시장 436개 있다는 것의 의미(중앙일보)
- [2018.10.1] 성대한 잔치 치르고 배굶는 북한... 포고문 내고 식량 유통 전면금지(조선일보)
- [2018.10.1] "취도 굶어죽는 해"...최악 식량난 덮친 北, 주민에 사형 협박도(중앙일보)